[부록 2] 문항카드

[세종대학교 문항정보]

<문항카드 1>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인문과학대학) / 문항 1,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도덕,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외부 효과, 국가 개입의 역할, 자유의 필요성과 억제의 근거, 자율성과 통제
예상 소요 시간	12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 효과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 외부 경제(긍정적 외부 효과), 반대로 손실을 끼치면 외부 불경제(부정적 외부 효과)가 된다. 예컨대 꽃집에서 화사한 화분을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낡은 트럭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은 불편을 초래한다. 꽃집은 타인에게 외부 경제를, 매연을 내뿜는 트럭은 외부 불경제를 제공한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부 경제는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는 심각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기에 늘 사회적 관심사가 된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해와 환경 문제이다. 술, 담배, 비만 유발 식품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들은 즐기는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과할 경우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따라서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수혜자(受惠者)에게 비용(세금)을 물려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是正)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을 '피구세'라고 부른다. 피구세는 첫 제안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1877~1959)의 이름을 딴 것으로,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외부 효과를 내부화, 즉 본인 부담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다. 환경세(환경 부담금), 교통세(교통 부담금) 등이 피구세의 범주(範疇)에 속한다.

피구세 중에서도 국민 건강과 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특정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을 죄악세라고 부른다. 일부 국가에서 논의되었던 설탕세(당 함유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 소다세(탄산음료에 물리는 세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탕, 탄산음료 등과 같은 식품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료 수요 증가, 건강 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므로 이를 억제하고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외부 불경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介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금 제도는 취지(趣旨)가 좋다고 쉽게 정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개입**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외부 효과를 근거로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는 논쟁거리이다.

(나)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의견이 본인에게는 모를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따라서 그 억압이 그저 사적으로 한정된 침해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억압을 받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강도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면 그러한 행위는 잘못을 드러내고 진리를 찾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또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견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강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한다.

(다) 엇박자 D의 노래는 들어 줄 만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음악 선생님은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벙긋벙긋하는 거야. 알았지?" (...)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엇박자 D가 노래를 부른 탓에 합창단의 축제 공연은 엉망이 된다. 이에 음악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합창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 망신을 주었다. 시간이 흐른 후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던 '나'는 20년 만에 무성 영화 전문가가 된 엇박자 D의 연락을 받게 된다. '나'는 유명 가수인 '더블더빙'의 공연 기획자로 이름을 올려 보고 싶은 욕심에 엇박자 D가 기획하는 '더블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함께 준비하게 된다. 엇박자 D의 부탁으로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을 함께했던 몇몇 친구들을 공연에 초청한다.

(...)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의 제목이 생각났다.「오늘 나는 고

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스물 두 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 줘."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1. 제시문 (가)의 '**선한 의도로 개입**'의 의미를 기술하고, 이것과 부합되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등장한 음악 선생님의 행동을 비판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3. 출제 의도

2021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범교과적인 문항을 출제하였다. 국어와 도덕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활용하였으나, 특정한 사전지식 없이도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및 글쓰기 능력이 있다면 수월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술은 지원자들의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비판능력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세종대학교 학생으로 선발될 충분한 종합적 사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1>은 외부 불경제를 시정하기 위한 선한 의도의 개입의 의미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시문 (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이해력과 그것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특히 (나)의 논지가 변하고 있는 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문항 2>는 제시문 (다)의 음악 선생님의 행동을 비판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 근거로 (가)와 (나)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는 <문항 1>을 작성하면서 채택한 (가)와 (나)의 논지를 거꾸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권위적인 개입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다시 생각해야 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억압하는 두 가지 위험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체계적으로 (다)에 적용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능력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고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 · 문화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읽기]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2	[읽기]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 이 성취기준은 여러 자료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필자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과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하기도 한다.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비판적·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읽기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3	[쓰기]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4	[쓰기]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 이 성취기준은 자신의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고쳐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소재가 같은 글이라도 주제, 목적, 독자, 매체에 따라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문항 1
성취기준 5	[문학]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 이 성취기준은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을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의 이론적 갈래인 서정, 서사, 극, 교술의 4분법 체계에 따라 각각의 갈래에서 삶을 형상화하는 데 어떠한 요소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화법과 작문의 본질]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	문항 1 문항 2

	함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2	[작문의 원리]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 이 성취기준은 독자의 요구, 관심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논거를 수집하고 조직함으로써 설득력이 높은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수집한 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문항 1 문항 2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독서의 방법]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이 성취기준은 글을 읽고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사실적 독해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들의 종합과 재구성 등의 독해 기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2	[독서의 방법]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3	[독서의 방법]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 이 성취기준은 여러 글에 제시된 다양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글에서는 필자나 독자 개인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어지며, 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나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글에 나타난 주제, 관점 등에 대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가)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4	[독서의 분야]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다) 문항 2
성취기준 5	[독서의 분야]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가) 나) 문항 1 문항 2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문학의 본질]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 이 성취기준은 우리의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며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문학이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것은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학을	다) 문항 2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성취기준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3	[문학의 수용과 생산]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다) 문항 2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사회와 윤리]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가) 나) 문항 1
성취기준 2	[평화와 공존의 윤리]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3	[사회사상]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가) 나) 문항 1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나) 문항 1
성취기준 2	[문화의 다양성]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다) 문항 2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가) 나) 다) 문항 1
성취기준 2	[개인과 사회구조]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다) 문항 2
성취기준 3	[개인과 사회구조]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다) 문항 2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오형규	좋은책 신사고	2020	240~241	제시문 (가)	재구성 없음
생활과 윤리	J. S. Mill	미래엔	2020	132	제시문 (나)	재구성 없음
독서	김중혁	좋은책 신사고	2020	90~94	제시문 (다)	재구성 없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 사항 없음						

5. 문항 해설

<문항 1>은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의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과 교육과정”의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의 선한 의도로 개입은 본인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외부불경제를 정부 차원에서 억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문항에 답하려면 이를 본문의 어휘를 사용하여 정확히 기술하고, (나)의 맥락에서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는지 기술해야 한다.

<문항 2>는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와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에 답하려면 제시문 (가)와 (나)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의 음악 선생님을 비판해야 한다. 음악 선생님은 '엇박자 D'가 불협화음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를 통제하고, 배제하고, 급기야 망신을 준다. 제시문 (가)는 선한 의도의 개입이 의도와 달리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제시문 (나)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억압하는 것의 두 가지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와 (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음악 선생님의 행위를 비판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90	250	700
	비판적 사고력	90		
	표현력	35		
	정서법	35		
	분량	0 ~ −30		
2번 대문항	이해력 1	120	450	
	비판적 사고력 1	120		
	비판적 사고력 2	120		
	구성 및 표현력	50		
	정서법	40		
	분량	0 ~ −40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제시문 (가)의 '**선한 의도로 개입**'의 의미를 기술하고, 이것과 부합되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가)에서의 '선한 의도로 개입'은 본인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를 정부 차원에서 억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나)는 대체로 개인들의 사상과 의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강압적인 통제가 필요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가)의 외부 불경제를 의미하며,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킬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면 사회 전체가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2.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등장한 음악 선생님의 행동을 비판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다)의 음악 선생님은 합창단 공연에서 '엇박자 D'가 불협화음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자진 사퇴를 권하다가 결국 그에게 입만 벙긋벙긋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엇박자 D는 끝내 노래를 불렀고 그 탓에 공연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음악 선생님은 엇박자 D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다.

(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세금을 물려 억제하는 정부의 선한 의도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를 (다)에 적용한다면 음악 선생님이 엇박자 D에게 합창에서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소리 내지 않기를 종용하는 등의 개입은 성공적인 공연을 위한 선한 의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 선생님의 개입은 학생들의 합창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음악 선생님의 과도한 간섭과 질책으로 즐거운 축제를 망친 것은 아닌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견해를 통제하는 것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옳은 견해였다면 진리를 억압하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틀린 견해라고 할지라도 그 틀린 견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진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엇박자 D의 기회를 억압한 음악 선생님의 행동은 비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틀렸다할지라도 엇박자 D의 참여를 제한하지 말았어야 한다. 훗날 밝혀졌듯이 엇박자 D는 다른 아이들과의 목소리와 함께 더 좋은 화음을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항카드 2>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사회과학, 경영경제대학) / 문항 1,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도덕,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문자 도입의 장단점, 언어의 기능성과 효용성, 노동 총량의 오류, 기술적 실업
예상 소요 시간	12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이집트의 나우크라티스라는 도시에 테우트라는 신이 살고 있었다. 이 신은 인간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를 발명했다. 그중에서도 테우트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내세운 것은 **문자**였다. 테우트는 으레 하던 대로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타모스왕에게 가서, 문자가 널리 쓰이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말했다.

"오, 위대한 왕이여, 이 발명품은 이집트인들이 더 지혜로워지게, 또 더 잘 기억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입니다."

그러자 타모스왕이 말했다.

"재주 많은 테우트 신이여, 우리 중의 한쪽은 유용한 발명을 했고 또 한쪽은 그 발명이 인간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판단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당신은 문자의 아버지로서 그것을 편애한 나머지 문자 사용이 가져올 결과와는 반대되는 효과를 앞세워 나를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자가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배우는 사람의 망각을 부추길 뿐입니다. 문자를 배우면, 그것에만 의존하여 기억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자신의 내적 능력으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호를 통해서만 기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발명한 것은 기억의 약이 아니라 회상의 약입니다.

또 당신은 그 발명품이 지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배우는 사람은 지혜의 실재가 아닌 외양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그 발명품 때문에 사람들은 배움이 없이도 여러 가지를 주워듣게 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가장 곤란한 상대가 될 것입니다."

(나) 백 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 하나, 어심엔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향리의 예법으로, 십 년 장이면 절하고 뵈어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깍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酒草)가 당치 않고, 막부득이한 경우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술 드슈,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 개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의 아전을 다녔다. 그 아비가 짚신 장수였다. 칠십에, 고로롱고로롱 아직도 살아 있지만, 시방도 짚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가는 방 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삼복이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는 모르는 상일꾼이었다. 그러나마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삐뚤이 삼복이었다. 물론 낫 놓고 기역 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상일꾼일 바엔 남의 세토(稅土) 마지기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삐뚤이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게다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 버렸다. 그것이 열두 해 전. (...)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의 다 찌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일 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엘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 이 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다시 일 년이나는, 그것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밑천 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둣방엘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트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둣방이 너나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궤짝 한 개 걸머지고 신기료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

'흥,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못 생각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

백 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코삐뚤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엘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지간에 이렇게 훌륭히 되고, 부자가 되고, 미씨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하여 가지고는 갖은 호강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 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탄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코삐뚤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은, 그러나 백 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었다. 다못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 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후략 부분의 줄거리▶ 신기료장수를 하던 방삼복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통역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미군 장교인 S 소위에게 접근한 방삼복은 그의 통역이 되면서 미스터 방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해방이 되면서,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된 백 주사는 미스터 방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복수를 부탁한다.

(다) 기술이 일과 직업 그리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산업 시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1810년대 영국 섬유 노동자들은 방직기 도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

다. 방직기는 산업 혁명 발아기의 기계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로 기술이 새롭게 진보할 때마다 신기술이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할 것을 우려하는 파문이 일었다.

이 논쟁의 한 축에는 신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자동화를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특징으로 설명했다. 1930년 전기와 내연 기관이 도입된 뒤, 케인스는 이러한 혁신이 물질적 번영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기술적 실업'을 만연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1964년 컴퓨터 시대의 여명기에 미국의 과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존슨 대통령에게 컴퓨터에 의한 자동 제어가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낳고 인간 노동에 대한 요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경쟁에서 앞서가면서 많은 노동자를 낙오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 논쟁의 다른 한 축에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 임금과 일자리 수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든다. 이 견해는 주류 경제학 내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었고 기술 발전이 인간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노동 총량의 오류'로 무시되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일의 양은 무한하게 증가하므로 고정된 '노동 총량'이란 없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하게 하리라는 생각은 오류라는 것이다.

1.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의 **'문자'**에 대한 견해와 제시문 (나)에서 백주사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근거로 제시문 (가)의 타모스왕을 비판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3. 출제 의도

2021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범교과적인 문항을 출제하였다. 국어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활용하였으나, 특정한 사전지식 없이도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및 글쓰기 능력이 있다면 수월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술은 지원자들의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비판 능력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세종대학교 학생으로 선발될 충분한 종합적 사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1>은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의 '문자'에 대한 견해와 (나)에서 백주사의 '영어'에 대한 인식의 의미를 각각 파악하고, 이 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가)의 '문자'와 (나)의 '영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해 능력이 필요하며, (가)에서 타모스왕의 견해와 (나)에서 백주사의 인식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문항 2> 제시문 (가)의 타모스왕의 새로운 발명품인 문자의 도입에 대한 주장을 분석하여 내

용을 요약하고, (나)와 (다)를 활용하여 타모스왕의 주장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가)의 타모스왕의 문자의 도입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논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와 (다)에서 논거를 찾아 (가)의 타모스왕의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즉 (나)에서 외양적 지혜의 현실적 가치에 대한 논거와 (다)에서 노동 총량의 오류를 통해 논거를 찾아내야 한다. 이 문항에 대해 기술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인 글에서도 비판 논거를 발견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성력 및 표현력이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능력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대학교 논술우수자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고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 · 문화</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 1</td><td>[읽기]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 [10국02-01] 이 성취기준은 읽기가 독자의 머릿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속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예컨대 독자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구체적 상황이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나아가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즉, 독자는 읽기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회에 참여하고, 그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td><td>가)
나)
문항1</td></tr>
<tr><td>성취기준 2</td><td>[읽기]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td><td>가)
나)
다)
문항 1
문항 2</td></tr>
</table></td></tr>
</table>

성취기준 3	[읽기]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 [10국02-03] 이 성취기준은 여러 자료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필자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과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하기도 한다.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비판적 · 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읽기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가)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4	[쓰기]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항 1 문항 2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화법과 작문의 본질]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2	[12화작02-03] 상대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한다. • [12화작02-03] 이 성취기준은 반대 신문 단계를 운영하며 토론의 수준을 심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였다. 반대 신문 단계는 입론 및 반론 단계에서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묻고 상대측의 답변을 듣는 토론의 절차로, 질문을 통해 토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상대측 발언을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상대측 논증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질의·응답으로 반대 신문 단계를 운영하면, 논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토론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토론자 간 생각의 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논제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다.	문항2
성취기준 3	[작문의 원리]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 [12화작03-04] 이 성취기준은 독자의 요구, 관심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논거를 수집하고 조직함으로써 설득력이 높은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수집한 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문항 1 문항 2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독서의 방법]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12독서02-01] 이 성취기준은 글을 읽고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사실적 독해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들의 종합과 재구성 등의 독해 기능을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성취기준 2	[독서의 방법]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 · 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3	[독서의 방법]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 [12독서02-05] 이 성취기준은 여러 글에 제시된 다양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글에서는 필자나 독자 개인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어지며, 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나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글에 나타난 주제, 관점 등에 대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가)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4	[독서의 분야] [12독서03-02] 사회 · 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 · 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5	[12독서03-04]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다) 문항2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문학의 본질]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 [12문학01-01] 이 성취기준은 우리의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며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문학이 정서적 ·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것은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나) 문항 1
성취기준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 · 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3	[문학의 수용과 생산]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4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나) 문항 1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사회와 윤리]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가) 나) 문항1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 [10통사01-01]에서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관점'은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맥락, 장소와 영역 및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2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나) 다) 문항 2
성취기준 3	[문화의 다양성]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가) 나) 문항 1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개인과 사회구조]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가) 나) 다)
성취기준 2	[개인과 사회구조]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가) 나) 다) 문항 2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플라톤의 〈대화〉 편 〈파이드로스〉 중에서	금성	2020	86	제시문 (가)	재구성 없음
문학	채만식	좋은책 신사고	2020	137~140	제시문 (나)	재구성 없음
독서	에릭 브리뇰프슨, 앤드루 맥아피	미래엔	2020	82	제시문 (다)	재구성 없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 사항 없음						

5. 문항 해설

<문항 1>은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사회과 교육과정”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1>은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의 문자에 대한 견해와 (나)에서 백주사의 영어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를 맥락을 통해 파악하고, 나아가 세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까지 추론해낼 것을 요구한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함께 다른 텍스트에 비춰 보았을 때 드러나는 차이점을 부각시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항 2>는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2화작03-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도덕과 교육과정”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2>는 제시문 (가)의 타모스왕의 새로운 발명품인 문자의 도입에 대한 주장을 논증적으로 분석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제시문 (나)와 (다)를 활용하여 타모스왕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제이다. 우선 (가)에서 문자가 망각을 부추기며, 지혜의 실재가 아닌 외양만을 갖게 만드는 도구라는 타모스왕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논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나)와 (다)에서 논거를 찾아 (가)의 타모스왕의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나)에서 미스터 방의 사례를 통해 외양적 지혜의 현실적 가치가 있음을 파악하고, (다)에서 언급한 기술적 실업에 대한 노동 총량의 오류의 사례를 통해 타모스왕의 주장을 비판할 것을 요구한다.

6.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90	250	700
	비판적 사고력	90		
	표현력	35		
	정서법	35		
	분량	0 ~ −30		
2번 대문항	이해력 1	120	450	
	비판적 사고력 1	120		
	비판적 사고력 2	120		
	구성 및 표현력	50		
	정서법	40		
	분량	0 ~ −40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의 **'문자'**에 대한 견해와 제시문 (나)에서 백주사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은 이집트인들이 문자를 쓰게 될 경우, 기억을 소홀히 하여 내적 능력보다는 지혜의 외양만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에서 백주사는 하찮게 여기던 미스터 방이 토막 영어를 익힘으로써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을 신통하게 여기며, 영어가 재주를 일으키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타모스왕과 백주사는 문자와 영어가 실제적으로 사람의 외적 능력과 겉모양만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타모스왕은 문자가 이집트인들의 기억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반면 백주사는 미스터 방의 영어 재주를 신기해하고 부러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백주사는 자신의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할 정도로 미스터 방의 영어 능력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근거로 제시문 (가)의 타모스왕을 비판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가)에서 타모스왕은 새로운 도구인 문자가 기억을 소홀히 하게 하여 망각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자로 인해 이집트인들이 지혜의 실재가 아닌 외양만을 가지게 될 뿐이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장 곤란한 상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타모스왕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비판받을 수 있다.

(나)에서 미스터 방의 영어 능력은 타모스왕이 언급한 외양적 지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양적 지혜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미스터 방은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영어는 그동안 미스터 방을 하찮게 여기던 백 주사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부탁을 할 정도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도구이다. 타모스왕은 내적인 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외양적 지혜가 지닌 현실적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기술이 도입된 후에도 노동자의 실질 임금과 일자리 수는 계속 증가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기술 발전이 인간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일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노동 총량의 오류'에 따른 것이다. 이는 일의 양이 무한하게 증가된다는 근거에 반하는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타모스왕은 사람이 기억하는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문자의 도입으로 인해 기억의 양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타모스왕의 새로운 문자(발명품)의 도입이 이집트인들의 망각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그들의 기억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문항카드 3>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호텔관광대학, 법학부) / 문항 1,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도덕,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실존과 주체성, 감각과 인식, 무주의 맹시, 시각의 오류
예상 소요 시간	120분	

2. 문항 및 자료

(가) 합리성과 법칙성을 중시한 근대의 이성주의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이루었다. 자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크게 향상하였고 산업 혁명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산업 혁명은 빈부의 격차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식민지의 착취와 노예 제도에 의한 비인간화가 심화되었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무기의 발전과 대규모 전쟁은 인류를 대량 살상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합리적 이성이 인류의 번영을 약속할 것이라는 바람과는 달리 개인의 삶은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성은 우리의 훌륭한 동반자일 수는 있지만 우리 삶에 최우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반성이 제기되면서, 주체적 결단과 실존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실존주의의 선구자인 키르케고르(S. Kierkegaard, 1813~1855)는 실존으로서 인간은 항상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 놓인 개인은 항상 불안을 느끼며, 선택을 꺼리고 회피함으로써 결국 모든 개인은 절망하고 만다. 키르케고르는 이런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절망하는 인간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진정한 자기, 즉 실존을 발견하게 된다. 단독자로서 개인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존재, 즉 주체성을 최대의 관심사로 삼는다. 바로 이 주체성이 진리이다.

따라서 진리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주체성, 즉 실존은 육체를 가지고서 절망하는 존재이며, 바로 그러하기에 자신의 존재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뇌하는 존재이다.

(나) 이날 홍려시 소경(鴻臚寺少卿) 조광련(趙光連)과 의자를 나란히 하고서 요술을 구경하였다. 내가 조광련에게 말하였다.

"눈이 능히 시비를 판단치 못하고 진위를 살피지 못할진대, 비록 눈이 없다고 해도 괜찮으리이다. 그러나 항상 요술하는 자에게 속게 되는 것은 이 눈이 일찍이 망령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되는 것입니다**그려."

조광련이 말했다.

"비록 요술을 잘하는 자가 있다 해도 맹인은 속이기가 어려울 터이니, 눈이란 과연 항상 믿을 만한 것일까요?"

내가 말했다.

"우리나라에 서화담(徐花潭) 선생이란 분이 있었지요.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만났더랍니다. '너는 왜 우느냐?'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세 살에 눈이 멀어 지금에 사십 년이올시다. 전일에 길을 갈 때는 발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소리를 듣고서 누구인지를 분간할 때는 귀에다 보는 것을 맡기고, 냄새를 맡고서 무슨 물건인가를 살필 때는 코에다 보는 것을 맡겼습지요.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으되, 저에게는 손과 발과 코와 귀가 눈 아님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찌 다만 손과 발, 코와 귀뿐이겠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낮에 피곤함으로 미루어 보았고, 물건의 모습과 빛깔은 밤에 꿈으로 보았지요. 장애가 될 것도 없고 의심과 혼란도 없었지요.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두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백태가 끼었던 눈이 저절로 열리고 보니, 천지는 드넓고 산천은 뒤섞이어 만물이 눈을 가리고 온갖 의심이 마음을 막아서 손과 발, 코와 귀가 뒤죽박죽 착각을 일으켜 온통 예전의 일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까마득히 잃어버려 스스로 돌아갈 길이 없는지라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화담 선생이 말했습니다. '네가 네 지팡이에게 물어본다면 지팡이가 응당 절로 알지 않겠느냐.' 그가 말하기를, '제 눈이 이미 밝아졌으니 지팡이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하니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아라. 바로 거기에 네 집이 있으리라.' 이로써 논한다면, 눈이란 그 밝은 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 요술을 보니, 요술쟁이가 능히 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경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은 것일 뿐이라오."

(다) 사람은 오감(五感),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이 다섯 가지의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으로,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퍼센트는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이다.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1999년 신경 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인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 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다. 그들은 흰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이렇게 주문하였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 주세요."라고.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히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하는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 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 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 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 주자, 분명 먼젓번 동영상에서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왜 이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칭했다.

1. 제시문 (나)에서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의 의미를 제시문 (다)를 근거로 설명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가)의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울고 있는 자'가 처한 상황과 서화담의 조언을 설명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3. 출제 의도

2021학년도 세종대학교 논술우수자전형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범교과적인 문항을 출제하였다. 국어와 도덕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활용하였으나, 특정한 사전지식 없이도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및 글쓰기 능력이 있다면 수월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술은 지원자들의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사고력 그리고 비판능력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세종대학교 학생으로 선발될 충분한 종합적 사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1>은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시문 (다)에서 근거를 찾아 설명하는 문제이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장을 제시문 (나)의 맥락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근거를 제시문 (다)와 연관 지어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문항 2>는 제시문 (가)의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울고 있는 자가 처한 상황과 서화담의 조언을 설명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의 키르케고르의 사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논증적으로 요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나)의 울고 있는 자가 처한 상황과 서화담의 조언을 키르케고르가 주장하는 '절망한 상태'와 '인간 주체성과 실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과 서로 다른 유형의 제시문들을 주어진 문제와 관련지어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 설명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성력 및 표현력 등이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능력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고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과목명: 통합사회, 사회 · 문화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읽기]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2	[읽기]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 [10국02-03] 이 성취기준은 여러 자료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필자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과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발견하기도 한다.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비판적·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읽기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3	[쓰기]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항 1 문항 2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화법과 작문의 본질]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2	[작문의 원리]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 [12화작03-04] 이 성취기준은 독자의 요구, 관심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논거를 수집하고 조직함으로써 설득력이 높은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수집한 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문항 1 문항 2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독서의 본질]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 [12독서01-02] 이 성취기준은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면서 읽거나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도록 한다. 여러 가지 관점이나 형식의 글은 주제에 대한 독자의 판단 근거이자 자료가	나) 다) 문항 2

	된다. 이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성취기준 2	[독서의 방법]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12독서02-01] 이 성취기준은 글을 읽고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는 사실적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사실적 독해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용의 중요도 평정,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들의 종합과 재구성 등의 독해 기능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3	[독서의 방법]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 · 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가) 나) 문항 1
성취기준 4	[독서의 방법]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 [12독서02-05] 이 성취기준은 여러 글에 제시된 다양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삶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글에서는 필자나 독자 개인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다루어지며, 이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나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글에 나타난 주제, 관점 등에 대하여 새로운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가) 나) 문항 1
성취기준 5	[독서의 분야] [12독서03-01] 인문 · 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가) 문항 2
성취기준 6	[독서의 분야] [12독서03-03] 과학 · 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다) 문항 1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문학의 본질]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 [12문학01-01] 이 성취기준은 우리의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해당하며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문학이 정서적 ·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는 것은 문학의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나)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 · 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나)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3	[문학의 수용과 생산]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나) 문항 1 문항 2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가) 나)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2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12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가) 문항 2
성취기준 3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12생윤01-03]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가) 나) 문항 1 문항 2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인간과 윤리사상] [12윤사01-01]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가) 나)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2	[인간과 윤리사상] [12윤사01-02] 우리의 도덕적 삶에서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하는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탐구하고,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를 토론할 수 있다.	가) 문항 2
성취기준 3	[서양윤리사상] [12윤사03-07] 현대의 실존주의, 실용주의가 주장하는 윤리적 입장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도덕적 삶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	가) 문항 2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가) 나) 다) 문항 1 문항 2
성취기준 2	[생활공간과 사회]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가) 문항 2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현대의 사회 변동] [12사문05-0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가) 문항 2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안번기	교학사	2020	155~156	제시문 (가)	재구성 없음
문학	박지원	금성출판사	2020	30~31	제시문 (나)	재구성 없음
국어	이은희	비상교육	2020	178~180	제시문 (다)	재구성 없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 사항 없음						

5. 문항 해설

<문항 1>은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생윤01-03]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1>은 제시문 (나)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되는 것입니다”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이를 (다)의 ‘무주의 맹시’를 근거로 설명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나)의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되는 것입니다”의 의미가 눈을 통해 본다하더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보는 현상인 (다)의 ‘무주의 맹시’와 관련지어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면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것을 요구한다.

<문항 2>는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도덕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2윤사03-07] ‘현대의 실존주의, 실용주의가 주장하는 윤리적 입장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도덕적 삶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항 2>는 제시문 (가)의 키르케고르의 철학 사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나)의 '울고 있는 자'가 처한 상황과 '서화담'의 조언을 설명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가)의 키르케고르가 주장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의 상태임을 이해하고, (나)의 '울고 있는 자'가 이러한 상태임을 파악하여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나)의 서화담의 조언을 키르케고르의 주장에서 제시된 인간 주체성과 실존의 중요성과 연관 지어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항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서로 다른 유형의 제시문들을 주어진 문제와 관련지어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 설명의 근거를 찾아내어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6. 채점 기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90	250	700
	비판적 사고력	90		
	표현력	35		
	정서법	35		
	분량	0 ~ −30		
2번 대문항	이해력 1	120	450	
	비판적 사고력 1	120		
	비판적 사고력 2	120		
	구성 및 표현력	50		
	정서법	40		
	분량	0 ~ −40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1. 제시문 (나)에서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되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의 의미를 제시문 (다)를 근거로 설명하시오. (25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나)는 요술에 속는 것이 눈이라는 감각 기관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요술에 현혹되는 것은 결국 구경하는 사람이 스스로 속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이 될 수 있다. 눈을 통해 분명하게 본다하더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에서 소개하는 '무주의 맹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이 습득하는 정보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시각 정보가 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흰 옷과 검은 옷, 패스의 횟수라는 선입관이 주어지자 고릴라가 등장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 즉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으로 보았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나)에서 말하는 '분명하게 본다는 것'은 '분명하게 본다고 믿는 것'에 불과하며 그것은 오히려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

2. 제시문 (가)의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울고 있는 자'가 처한 상황과 서화담의 조언을 설명하시오. (450점, 800~9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가)의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진 상태라고 본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합리적 이성을 갖추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실은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의 상태를 의미한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적 이성이라는 근대적 도구가 없었을 때 오히려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합리성과 법칙성은 조화가 아니라 착취와 불평등을 가져오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왔다. 합리성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선택의 상황에 놓인 개인은 항상 불안을 느끼며, 선택을 꺼리고 회피함으로써 결국 절망하고 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키르케고르가 설명한 절망은 (나)의 울고 있는 자가 처한 상황과 유사하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게 되어 도리어 혼란을 겪으면서 급기야 길에서 울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발과 손과 귀를 이용하여 눈이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함을 채워왔으나, 눈이 보이게 되자 넘치는 정보로 집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가)에서 키르케고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울고 있는 자는 항상 불안하며 선택을 회피하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와 같다.

서화담은 울고 있는 자에게 차라리 눈을 감으라고 조언한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키르케고르가 인간의 실존을 중시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키르케고르는 절망하는 인간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주체적으로 실존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서화담은 키르케고르와 같이 자신의 존재 방식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뇌하라고 조언한다고 볼 수 있다.